

郷土의 환경 지키려는, 일복많은 애향인

■ 편집부

지난 해 서점가에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의 선풍이 강하게 불었었다.

대망의 辛未年.

신년 벽두에 ‘이달에 만난 환경인’으로 만난 그도 ‘할 일이 많다’는 역센 사나이이다(?).

구미 토박이. 눈 큰 사람치고 악한 사람없다던가.

커다란 눈에, 너살 좋게 웃어보이는 그를 처음 만난 곳은 지난해 대구·경북협회의 체육대회날이었다.

각 지역협회의 중 제일 늦게 치러진 그날엔 겨울을 재촉하는 비마저 내렸었지만, 제작년도 우승팀인 ‘구미팀’을 인솔하고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은 쉽게 포착됐었다.

朴浩正환경관리인. 그날 대구·경북협회의 송세용(전임)회장은 동 협회의 이사이며, 구

▲지난해 체육대회때, 그가 이끌고 있는 구미지회는 2연승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미지회장을 맡아 맹활약중인朴회장을 소개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그가 이끌고 있는 구미지회는 협의회가 구성되기전부터 환경관리인들의 권익옹호와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고 한다. 현재 회원수는 2백30명. 지난해에도 환경관리 우수업체 견학, 기술세미나 및 관리인가족 체육대회와 금오산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는 '79년도에 수질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근무처는 구미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리온 전기주식회사다.

그는 이곳 공무과 환경담당계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환경관리를 맡아오고 있다.

오리온전기주식회사는 칼라 및 흑백브라운관을 생산하는 대우그룹 계열회사로, 종업원수는 4천여명.

25년의 짧지않은 연륜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 본사는 대기업으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건실한 회사라고 설명한다.

2~3년전까지만 해도 생산부서 우선이라는 회사의 방침때문에 환경관리분야의 설비 증설이나 계측기 교환등의 결재가 되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지금은 타당성만 인정되면 회사측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지난해에도 집진기 설치, 탈수기 교체등에 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듯 열심히 회사 P.R을 하는 그는, 회사

일하라 협의회, 지회일하라 눈코 뜰새 없이 한 달이 지나간다고 즐거운 푸념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한몫 바쳐 낙동강 물이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진다면, 또한 우리 관리인들을 위한다면 이 한몫 바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라며 거침없이 웅골찬 한마디를 토로하기도.

그의 환경관을 일시에 대변해주는, 정말로 그의 강한 이미지에 걸맞는 말인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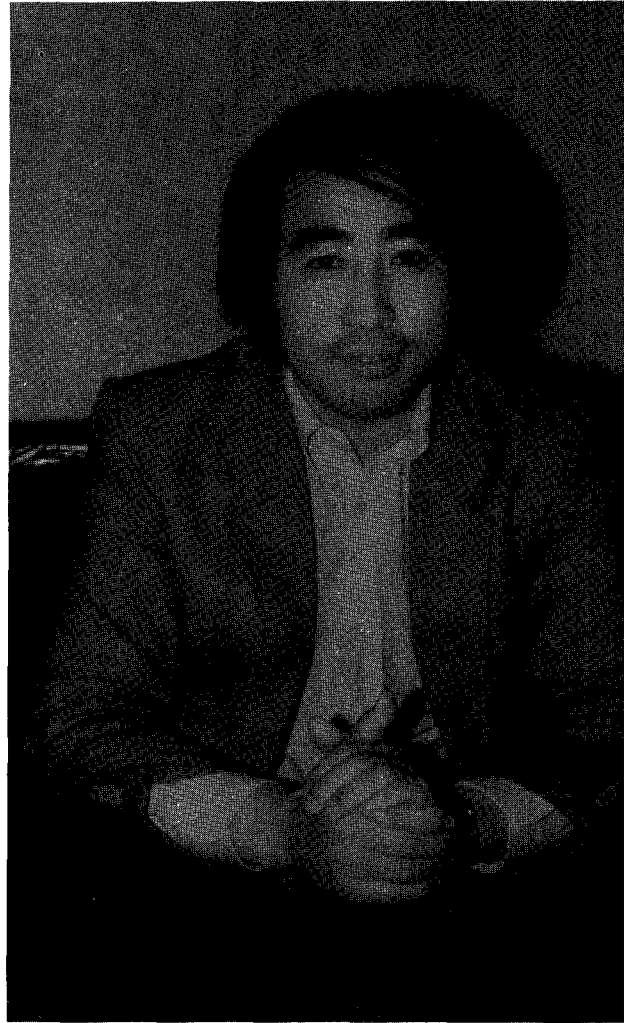
조금은 익살스러워보이는 말과 몸짓들, 하지만 그속엔 일에 대한 욕심과 자신감, 그리고 고항의 환경을 지키려는 애항심이 엿보인다.

물론 관리인으로서의 고충도 있다. 비단 그만큼 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문제로 인한 어려움이다.

“폐기물처리업체가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조업정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매립장을 확보해 주든지, 매립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든지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좌우명으로 삼고, ‘운동’자 들어가는 것은 다 좋아한다는 스포츠파.

또한 환경관리인을 천직으로 알고 향토의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기쁨을 찾는 소박한 환경인. 일이 좋아 일을 쫓아다니는 이 질박한 애항인에게서는 문자 그대로의 듄직함이 물씬 배어나온다. ■



환경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환경인회관건립은 일선에 근무하는 모든 관리인과 관·산·학에 종사하는 진정, 우리의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환경인을 위한 대역사입니다.

환경관계 모든 자료와 실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인회관건립에 현장에서 환경보전을 몸소 실천하는 환경관리인들의 작은 정성이 하나, 둘 모여질 때, 우리 모두의 지대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경인회관 기금모금에 환경관리인의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